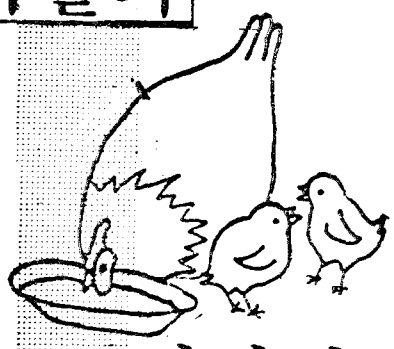
이달의 사양관리



6월

김 상 곤
〈인산농원 제1농장장〉

금월은 지루한 장마철에 접어드는 달로서 외기온의 상승과 더불어 계사내의 고온다습으로 최악의 환경조건에 다달음과 동시에 또한 농번기를 맞아 일손을 전담관리에 많이 빼앗기게 되므로 해서 사양관리의 불실로 인한 산란의 저하및 계병의 발생등을 초래할 우려가 다분히 있는 달인 것이다.

따라서 장마철에 접어들기 전에 미리 계사환경및 구조의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연변, 하리, 계두, 류코싸이토준등 장마철에 다발하는 질병에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1. 계사내 환기및 건습관계의 조절

창을 개방하여 가능한 한 계사내가 고온다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지만 비가 내리는 날에도 계속 열어놓고 있으면 오히려 빗발이 계사내로 들이쳐 더욱 습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의 방향및 빗발을 고려하여 창을 개방해야 될 것이다.

비가 연일 내린다해서 항상 창을 닫아 놓으면 계사내의 습도는 높아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환기불량으로 인해 호흡기병을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으니 우중이라도 틈틈이 환기를 시켜야 되며 날이 개이면 즉시 창을 개방하여 통풍환기를 촉진하여 계사내 건조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사계사에서는 운동장이 특히 습해지기 쉬운데 비가들이쳐 운동장의 왕겨 또는 톱밥이 젖게되면 매우 비위생적이 되어 닭에게 악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오란(汚卵)의 발생이 많아지게 된다.

날이개이면 깔깃을 뒤집어주거나 새로운 깔깃을 넣어주어 운동장의 건조를 도모해야 하겠으며 짚을 이용할 경우 10 정도로 잘라서 넣어주면 닭이 발로 뒤집어 씌워 짚의 건조가 빨라서 좋다.

2. 사료변질의 방지

고온다습한 환경은 닭의 식욕을 감퇴시켜 먹다남은 사료가 변질하게된다.

사료가 변질되면 더욱 식욕을 감퇴시켜 사료의 섭취량이 줄어들 뿐만아니라 세균성폐염이 유발되기도 하고 하리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농번기라고 해서 한번에 많은양의 사료를 급여한다던가 또는 남은 찌꺼기 사료위에 새로운 사료를 급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찌꺼기 사료위에 새로운 사료를 얹어줄 경우에는 쉽게 굳어지므로 찌꺼기를 뒤집어섞어 새로운 사료를 주는일이 없도록 하고 반드시 남은 사료를 다 먹은후에 다시 사료를 주도록 해야한다.

식욕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에는 곡류 또는 양질의 어분을 약간 사료에 첨가급여 한다거나, 고추가루물을 먹인다거나, 사료에 후추마늘등을 섞어 먹이면 효과가 있다.

또 사료는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여 장기간 저장하는 일은 가능한한 피하도록하고 보관은 직접 지면에 사료를 놓는 일이없이 반드시 건조된 장소에 받침목을 사용하여 보관해야 된다.

3. 계사 내외의 배수

강우량이 많아서 계사주위에 고이게 되면 계사내로 침수한다던가 출입구가 진흙탕이되어 오랜기간동

안 습한기운이 사라지지 않게되니 계서주위의 배수구를 철저히 보수 정비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지않으면 안된다.

4. 연변대책

매년 하절기에 접어들면 케—지 계사에서는 연변대책에 대하여 고심하게 되는데 이는 환경습도의 상승에 동반하여 체온이 상승함으로 해서 한선유동(汗線流動)이 안되는 닭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물을 마시고 호흡이나 분뇨를 통하여 체열을 발산시키게 되므로 변은 매우 연변화 하는것이다.

케이지계사가 특히 연변이 심한 원인은 환경조건이 한경되어 있다는점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연변대책으로는

① 음수제한

② 배설물의 적절한 처치

③ 계사구조, 환경개선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수있다.

1) 음수제한

음수량을 제한하는 방법과 급수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시험을 거친결과 시간제한 급수법으로 1일 2회 2~3시간 급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2) 배설물에 대한 처치

배설물에 대한 처치방법으로는 건조제를 살포하여 배설물을 굳게하는 동시 탈취하는 방법과 건조계분을 살포하여 수분을 흡수케하는 방법, 건조가(乾燥架)를 이용하는 방법등이있다.

계분건조제로 많이 사용하는것은 소석회, 유산망간, 유산철을 주성분으로한 여러가지 약품등이 있다.

3) 계사구조, 환경의 개선.

계사건축시 단열재를 사용하여 계사를 설계하고 사내 통풍환기를 물리적인 조처를 해서라도 잘되도록 조처해야 된다.

사내 통풍환기의 방법은 겨울철과 여름철이 다른데 여름철에는 지면을 따라 흐르는 기류를 사내로 유입시켜 상부벽 환기구 또는 천정을 통하여 유출되도록 하여야 하며 겨울에는 이와 반대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100평 계사의 예를들면 하부 환기구를 완전히 열어놓고 상부 환기구에 11인치휀(1/20 HP모타 이용) 4대를 가설하여 환기시키면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다. 좀더 인치수가 큰 휀을 사용하여 천정으로 직접 환기시키는 방법도 가능하다.

5. 기타 질병의 예방

5,6월에 다발하는 계병으로서 계두는 통상 입추시에 백신접촉을 실시하여 예방을 하고 있으나 5월초에 다시 한번 재접종함이 안전하다고 본다.

닭겨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류코싸이토준에 대한 예방약으로서 5.6월에 접어들면 사료에 직접 후라조리돈 제재를 첨가하는것이 통례이며 계사내외에 닭겨모기가 서생할 수 없도록 충분한 살충소독을 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내외부 기생충의 구제를 진작부터 실시하여 가뜩이나 고온다습의 환경조건에 시달리고있는 닭들에게 더불어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조처하여야 되겠다. □□